

한국개혁신학의 현주소

한국 장로교회에 미친 오순절주의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요한(개혁신대)

1884년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된 이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내적으로 다양한 신학적인 문제의 발생으로 심각한 갈등과 고통, 분리를 피할 수 없었으나 외적으로 놀라운 성장과 해외선교 사역을 통해 세계교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1945년 해방 이후 민족 독립과 조국 건설이라는 대 과업과 함께 급속히 확산되어 가는 현대 사상과 세계의 조류에 맞서 우리 교회가 이룩한 신앙적 전통이기에 매우 값지고 자랑스러운 것이다. 특별히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신학, 혹은 개혁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한국교회는 보다 성경적이며 보수적인 입장에서 부흥 성장해 왔다. 이 신학은 주로 몇몇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바, 복음 전래 이후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부흥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 특징을 이야기할때 우리는 개혁신학, 혹은 한국장로교회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만큼 한국교회와 개혁신학 혹은 장로교회와의 관계는 불가분리의 관계라 할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한국교회는 이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더 이상 개혁신학적 전통을 사수한 교회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는 지난날 개혁자들과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물려준 개혁신학의 전통이 여러 부분에서 약화되고 퇴색해 가는데서 발견된다. 즉 한국교회는 한편에 보수적인 개혁주의적 전통을 구호로, 다른 한편에 무분별한 다양한 신학적 운동으로 어떤 특징을 상실한 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와 관련한 여러 신학적 주제들을 상고하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개혁신학의 현주소를 물어야 할 긴박한 처지에 다다른 것이다. 적어도 개혁신학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한국교회의 신학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직면한 위기의 극복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이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개혁신학회가 주최한 제5회 “개혁신학의 현재적 조명”이라는 정기학술심포지엄은 21세기를 눈앞에 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정립되어야 할 신학적 주제일 것이다. 종교 개혁자들이 이룩한 개혁신학의 정신은 항상 말씀과 건전한 신학, 그리고 실천을 바탕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며 안정적으로 부흥해 가야 할 것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교회 내에서 다양한 신학적 논쟁들이 끝없이 전개되었으나 성경을 이탈한 어떤 운동과 타협하지 않고 역사적 교회의 전통 확립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심창섭 교수가 발제한 “한국 개혁 신앙의 현주소”는 오늘날 한국의 개혁신학회, 특별히 장로교회가 너무 쉽게 생각해온 주제를 다시 한 번 상기하여, 한국개혁교회(장로교회)의 분명한 신학적 입장과 동질성의 확립을 요청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논평에 앞서 심 교수의 한국 개혁 신앙의 현주소를 분석하면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1) 서론에서 현대 교회사에 나타난 오순절 운동과 이 운동으로 인

해 발생한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혼선을 말한다. 그에 의하면 한국장로교회는 신학적으로 칼빈주의적 신앙을 따르고 있다고 하나 상당부분 오순절적 사역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오순절주의의 영향을 인정하든지 혹은 부정하든지 아니면 제3의 길을 찾아야 할 상황에 있다. 따라서 심 교수는 한국장로교회와 오순절 운동 사이의 역사적 관계를 추적하고, 한국장로교회의 현상황을 분석하며, 칼빈의 입장과 대안을 그의 저작을 통해 조명해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2) 한국장로교회 내에서 부흥운동의 두 조류: 이는 오순절적 은사와 이적에 대하여 가지는 한국장로교회 내의 두 조류를 조명한다. 예를 들면 1900년대 초에 선교사들과 김익두 목사에 의하여 일어난 부흥운동이 오순절적 치유와 이적으로 나타났으나 1930년대 이후 한국장로교회에서 소멸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1970년대 이후 다시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와 함께 재연되었다. 처음에 한국장로교회는 조용기 목사의 오순절적 부흥운동에 반대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이를 지지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장로교 목사들과 신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고 몇몇은 한국장로교회 내에서 갈등을 야기하였다. 비야흐로 한국장로교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3) 한국장로교회 내의 오순절주의의 발흥: 이같은 양상은 곧 한국장로교회 내에서 보다 심화된 신학 논쟁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 교수는 고신대학교의 안영복 박사와 총신대학교 전총장 차영배 박사를 대표로 전개된 성령론에 관한 입장을 정리한다. 심 교수는 먼저 1993년 12월에 개최된 Academia Christiana 심포지엄에서 안용복 박사가 발표한 “구약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이라는 논문을 소개한다. 그에 의하면 안 박사는 요엘서 2:22-23을 문맥에 따라 성령의 도래를 설명하면서, 성령의 도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순절 날에 완전히 성취되었는가 아니면 그 날에 시작되었는가?라고 질문한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요엘서의 구절들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세

히 관찰하면 약속은 오순절 성령의 도래가 과거에 완성된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도래를 시작케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총신의 차영배 박사는 성령 강림의 연속성에 관하여 유사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차 박사는 이미 발표한 그의 여러 논문에서 카이퍼, 개핀, 스토트와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비판하였다. 차 박사는 자신이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성령의 도래가 단 한 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계속성의 근원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전통적으로 이해해온 스테반과 같은 특별한 사람이 성령을 받았던 사도시대로 성령충만을 제한하는 것을 비판하고 성령 도래의 보편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러한 성령충만의 보편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1907년 한국의 부흥운동을 언급하였다. 차 박사는 또한 몇몇 성경구절을 기초로 성령 세례를 성령을 마심과 동일시하였다. 그에게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경험해야만 하는 인격적인 체험이다. 이러한 성령을 마심 혹은 성령을 호흡함은 중생하는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으나 대개 중생 이후 기도중에 발생한다. 심 교수에 따르면 결국 차 박사는 개인적 반복적 성령 체험을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것과 동의어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이해는 한국장로교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발전하면서 교회 부흥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4) 성령의 사역에 대한 칼빈의 견해: 본절에서 심 교수는 한국장로교회가 칼빈주의적 신학 전통을 계승했다고 한다면 교회 내의 오순절적 요소에 관한 성령론의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심 교수는 한국장로교회와 칼빈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칼빈의 사상을 정리한다. 이해를 위해 그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주석, 그리고 설교를 근거로 그의 논리를 전개한다. 그에 의하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3:14-15에서 성령의 신성을 논한 후 성령의 사역을 믿음에 앞서 일어나는 것으로 순서를 배열하였다. 칼빈은 성령이 창조 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강조한다. 그에게 있어서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계를 지

탱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중생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성령은 그의 신비한 힘을 통해 인간의 중생에 있어서 믿음에 선행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입술의 성령을 동일시한다. 그러므로 칼빈은 성령을 말씀과 융합시킨다. 이것은 칼빈시대의 성령과 말씀을 분리시키는 경향을 보였던 재세례파와 강한 대립을 이룬다. 칼빈은 성령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나 이것이 오순절주의에 대한 경험적 강조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칼빈은 그의 로마서 8:15-17을 주석하면서 《기독교 강요》와 거의 같은 용어로 성령의 사역을 논한다. 그는 신자가 확신을 얻기 전에 성령이 오신다고 부언한다. 성령에 의해 생겨난 특별한 효력에 대하여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 담대하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칼빈은 이를 인침이라 부르고 인침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 받지 못한다. 이것은 중생의 과정에 있어서 성령의 절대적인 역할을 가리킨다. 그러나 역시 그는 성령의 사역이 풍성하고 자유롭게 일어난다고 주장하나 고전 2:10-13과 12:8-10을 통해 오순절적 의미의 성령 체험을 옹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칼빈은 오순절과 사도시대에 부여주신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주석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외적 은사를 내적 신앙의 문맥 속에서 위치시킨다. 이는 곧 사도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직접적으로 신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 이로써 칼빈은 신약시대 은사의 가시성보다는 은사의 목적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는 믿음이나 세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로 볼 때 결국 신자들은 외적 혹은 가시적 표지나 은사는 과도하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사역과 은혜는 믿음이라는 더 큰 은사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복음시대에 국한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칼빈은 그의 설교에서 오늘의 신자들과 관련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은사와 그 이후 신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은사를 미묘하게 구분한다. 그에 의하면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을 이해한 후에 우리들 삶 속의 성령의 사역으로 돌아와야 한다. 성

령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통치하고 인도하시며 믿음의 절개와 확신을 부여하는 과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실행하신다. 보다 중대한 의미에서 성령의 은사는 어떤 외적 성취에 있지 않고 내적 인식에 있다. 칼빈은 여러번의 설교에서 반복적으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오순절과 복음서 시대에 사도들이 받은 방언의 은사는 복음 전파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최상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과 인내이다.

(5) 결론에서 심 교수는 성령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관점에서 한국장로교회 내에 있는 치유와 방언의 형태로, 즉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최근의 경향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할 것을 말한다. 심 교수는 이미 앞에서 논의한 대로 한국교회의 역사는 종종 신앙의 외적 감정적 표지들에 대한 의존으로 특징되었다. 이는 결국 한국장로교회에 오순절교회가 미친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장로교회와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이 문제는 바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심 교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외적인 은사에 대한 의존과 강조는 칼빈주의적 개혁주의 전통의 일부가 아니라고 한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경험하고 믿음을 견지하도록 도우신다. 그러나 만약 한국장로교회가 현재의 경향을 지속한다면, 교회는 먼저 오순절적 요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것이 교리적 입장과 일치되는지를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이같은 심 교수의 강연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 한국개혁주의교회, 특별히 장로교회는 성령론에 관한 분명한 신학적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개혁자들의 신앙적 전통을 따르는 개혁주의적 공동체로서 성경을 해석을 두고 둘로 양분되어 많은 물의를 빚어 왔던 바, 이제는 확실한 신학적 이해와 해석이 뒤따라야 할 것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성령론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성경관을 비롯하

여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안수문제, 환경문제와 같은 분야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심 교수가 주장한 성령론의 바른 정립은 한국장로교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장로교회는 역사적 개혁주의에서 이탈한 기형적 개혁주의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2) 개혁주의 신학의 정립은 신학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실제적이며 목회적인 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경말씀의 객관적 이해와 적용보다는 이를 취급하는 개인들의 이해와 체험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 특별히 대교회 목회자들의 생활 철학과 목회 지침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왔다. 그러다 보니 한국장로교회는 그 자체의 독특한 신학 전통과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거듭하며 심지어 자체내에서 갈등을 봉합할 수 없는 상태로 나가게 되었다. 따라서 심 교수의 지적처럼 말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한국개혁교회 내에 내재하여 온 일반적 경향은 개혁주의적인데, 목회적 실천은 오순절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경의 바른 이해와 개혁주의 전통을 확립한 개혁자들의 사상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혁주의 신학의 정립은 어떤 특정인의 이해나 그룹의 이해를 따라 좌우될 수 없다. 개혁주의적 전통은 단순히 우리들의 결심과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부단한 자기 노력과 분투, 진리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통해 이룩되는 것이다. 이 전통을 확립하기 위해서 전생활의 변화와 개혁적 실천이 요구된다.

(3) 한국개혁주의 신학은 자체의 신앙적 전통과 독특성에 근거하여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여러 기독교 운동들과 연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자는 지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상 등장한 수많은 시학적 용어중에 개혁주의 혹은 개혁신학보다 더욱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매력적인 신학 용어는 없다고 믿는다. 개혁주의 신학을 통해 수많

은 사람들이 그의 주권과 사랑을 체험하였으며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어둠을 몰아내고 그곳에 새로운 국가와 사회, 윤리와 도덕, 가치관이 바로 형성되는 변화된 삶을 정착시키는 일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세계 교회는 개혁주의에 큰 빛을 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개혁주의 신학 논쟁을 지양하고, 21세기 미래의 한국장로교회를 개화하기 위한 새로운 작업이 요청된다. 적어도 개혁주의 신학 전통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신학, 말씀의 신학적 전통과 실천을 이룩해야 하겠다.